

김도영 “올해는 그라운드서 야구선수로 살겠다”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태극 마크를 달고 타이거즈 대표 선수로 뛰게 된 김도영이 ‘김도영 답게’를 강조했다.

김도영은 지난 6일 발표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야구 국가대표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내야수 김도영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국가대표에 발탁된 김도영은 다양한 감정이 교차한다.

김도영은 “기본 좋고 책임감이 생긴다. 우리팀 선수들 뒤편까지 열심히 하고 오겠다”며 “작년에(부상으로) 보여준 게 없는데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나의 몫이다. 대표팀에 뽑혔으니까 그만큼 퍼포먼스 내야 한다. 이에 보답하려면 잘하는 것 밖에 없다. 열심히 하고 오겠다”고 책임감과 감사함을 이야기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김도영은 지난해 부상으로 악몽 같은 시즌을 보냈다. 개막전 두 번째 타석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김도영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햄스트링 부상에 신음하면서 30경기 출장에 그쳤다.

김도영은 “나의 복귀 무대가 WBC라는 게 걱정은 된다”며 “감독, 코치님, 단장님이 WBC 다녀오신 분들이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긴장감 정도가 달라서 다음날 피로도도 많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만큼 몸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경기적 감각은 오키나와 가서 연습경기 하면서 잡는 것이고, 회복과 몸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달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지난해 8월 7일 롯데전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만큼 우려의 시선은 있다.

하지만 김도영은 “3번의 햄스트링 부상이 흔치는 않으니까 당연히 트라우마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안 다치고 될 수 있게끔 단단히 재활 했고, 재활 기간도 길게 가져갔다”며 “심리적 불안함을 덜어뜨리려고 지금 그라운드에서 많은 양의 훈련을 하고 있고, 캠프 오기 전에 그라운드랑 친해지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나다운 플레이를 하겠다. 그래야 힘이 난다. 관리 잘하면서 그라운드에서는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KIA의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새 시즌에 대한 준비도 빈틈없다.

김도영은 “처음 두 번의 부상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부상을 당하고는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다. 사람들의 위로의 말과 조언이 귀에 안 들어왔다. 지나고 보니

팀 유일 WBC 국가대표 발탁

3차례 햄스트링 부상 극복

KIA 대표로 새 시즌 준비 완료

팬·팀에 대한 책임감 안고 뛸 것

선배님들이 하신 말이 무엇인지 느꼈다.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사람들이 슬럼프에서 빨리 나가려고 애쓰면 더 깊게 빠진다고 하는데 나는 바닥까지 뛰어내리는 스타일이다. 2~3일 정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바닥까지 가고, 밑에서 산책하다가 올라갈 일만 남은 사람처럼 회복한다. 그렇게 하면서 한층 더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부상은 아쉽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김도영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도 얻었다.

김도영은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영양제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좋은 게 있고 그런 것을 찾아 먹어야 한다. 햄스트링에 대한 운동법, 관리법도 많이 배웠다. 관리법을 일찍 배운 것은 다행이다”고 이야기했다.

건강을 회복해 국가대표로 기분 좋게 새 시즌을 열게 됐지만 마음 한 곳에 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김도영은 “미안함이 많이 컸다. 지난 캠프 때 이곳에 계셨지만 지금 팀에 안 계신 분들도 있다.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하다. 지난해 어바인에서 캠프를 했는데 내가 잘 못해서 팀에 부담을 줬다”며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지난해 KIA는 1위에서 8위로 순위가 수직 하락했고, 김도영의 부상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라운드에서 없던 김도영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던 지난 시즌. 올 시즌에도 김도영에게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도영은 그런 시선을 부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김도영은 “베테랑부터 신인까지 모든 야구 선수는 결과적으로 잘해야 한다. 모두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내야 하는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즐긴다. 그런 관심을 즐긴다. 너무 좋은 관심이다. 항상 잘해야 한다. 잘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루하루 무난하게 끝나는 것을 감사해하면서 살고 있다. 야구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며 “지난해 모든 게 그리웠다. 출근, 퇴근길도 생각나고 숙소 사우나 가는 길도 생각났다. 팬들의 합성도 그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그리웠다. 지난해에는 야구선수가 아니었다. 올해는 그라운드에서 야구 선수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도영이 8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야구장 실내연습장에서 평고를 받고 있다.

‘다국적’ WBC 한국 대표팀 구성 완료

이정후·데인 더닝 등 30명 확정…3월 도쿄서 조별리그

WBC에서 KIA 김도영과 제리드 데일의 내야수 맞대결이 펼쳐진다.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 국가대표 선수 30명의 명단이 지난 6일 발표됐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한 김도영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빅리거’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빅리그 도전 중인 고우석(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과 함께 한국계 선수인 야수 제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셰이 위트컴(휴스턴

애스트로스)과 투수 데인 더닝(시애틀 매리너스),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이 태극마크를 달고 WBC 무대를 누비게 됐다. 대표팀은 투수 15명, 야수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가 가장 많은 6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준우승 팀 한화 이글스에서는 5명이 선발됐다.

KIA에서는 아시아쿼터로 타이거즈 일원이 된 내야수 제리드 데일도 호주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WBC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국은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으며, 3월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조별리

그 경기에 나선다. 한국은 조 2위에 들어야 8강 토너먼트에 나설 수 있다.

한편 대표팀은 이달 중순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게 된다. 2월 24일에는 KIA와 자체 연습경기도 진행한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 선수단 명단

▲투수= 데인 더닝(시애틀), 콕빈(두산), 조병현·노경은(이상 SSG), 박영현·고영표·소형준(이상 KT), 원태인(삼성), 류현진·정우주(이상 한화), 송승기·손주영(이상 LG), 고우석(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김영규(NC)

▲야수= 김도영(KIA 타이거즈), 김혜성(다저스), 김주원(NC), 문보경·신민재·박해민·박동원(이상 LG), 노시환·문현빈(이상 한화), 셰이 위트컴(휴스턴), 안현민(KT), 제마이 존스(디트로이트), 구자욱(삼성),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최재훈(한화) /김여울 기자 wool@

전남, ‘루키’ 김민석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2004년생 ‘루키’ 공격수 김민석(사진)을 영입했다.

인천 출신의 김민석은 부천FC 1995 U12, U15, U18을 거쳐 2023년 K3 시흥 시민축구단(K3)에서 도전을 시작

했다. 이후 시흥시평택시티즌(K4)과 포천시민축구단(K3)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22살이었던 지난해 목포과학대에 입학해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성인 무대에서 3득점 4도움을 올렸던 그는 목포과학대에 입학 후 U리그 9경기에서 10골을 터트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전남과의 연습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그는 테스트를 통해 전남 유니폼을 입게 됐다.

175cm, 70kg의 체격의 김민석은 측면에서의 빠른 사이드 플러와 슈팅이 강점이다. 또 저돌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라인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등 공격 전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은 “전남드래곤즈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다. 어렵게 온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응원 해주시는 만큼,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스, 1위 도로공사에 역전승…구단 최다승 ‘타이’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리그 선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다.

페퍼스는 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1(24-26 25-19 25-16 25-14)로 꺾었다.

이날 조이는 31점으로 양 팀 최다 득점을 올렸으며, 박은서(20점)와 박정아(11점)가 뒤를 이었다.

시마무라는 9점, 박사랑과 하혜진은 각각 5점씩을 보냈다.

페퍼스는 이날 경기에서 세 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힘을 보탰다.

1세트 초반 페퍼스는 박은서의 킥오픈과 서브 에이스, 박정아의 연속 오픈 공격으로 6-3까지 앞서갔으나 도로공사의 서브 득점에 흐름을 내줬다.

이후 조이와 박정아, 시마무라의 공격으로 다시 점전을 만들며 15-14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시소게임 끝에 24-24 동점을 만들었지만 승부처에서 서브와 공격에서 범실이 나오며 24-26으로 세트를 내줬다.

2~4세트 내리 따며 3-1…11승

조이 31점 등 3명 두 자릿수 득점

11일 GS칼텍스 상대 12승 도전

페퍼스는 1세트에만 범실 8개를 기록하는 반면 도로공사는 범실 1개를 기록했다.

2세트는 페퍼스가 먼저 흐름을 잡았다.

조이의 오픈과 박은서의 서브 득점으로 초반 리드를 잡았고, 조이와 박정아의 킥오픈으로 10-10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주도했다.

박은서의 연속 킥오픈과 박사랑의 서브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린 페퍼스는 시마무라의 이동 공격까지 더해 25-19로 세트를 가져왔다.

조이와 박은서는 2세트에서 각각 71.43%과 75%라는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

3세트에서도 페퍼스의 좋은 흐름은 계속됐다.

박정아의 연속 오픈과 박사랑의 블로킹으로 초반 리드를 잡은 페퍼스는 조이의 백어택과 박은서의 킥오픈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하혜진의 블로킹과 속공이 이어지며 11-5까지 벌어졌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격으로 25-16 여유 있게 세트를 마무리했다.

4세트 역시 앞선 세트의 흐름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점수 차로 리드를 가져왔다.

초반 박정아의 킥오픈과 수비 가담으로 분위기



AI페퍼스가 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꺾으며 승리했다. 페퍼스는 이날 승리로 시즌 타이거(11승)를 달성했다. <KOVO 제공>

를 끌어올린 페퍼스는 시마무라의 속공과 블로킹, 박사랑의 페인트 공격으로 8-5 리드를 잡았다.

이후 연속 득점으로 격차를 벌린 페퍼스는 박은서의 연속 오픈과 조이의 마무리 공격으로 25-14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승리로 페퍼스는 시즌 타이 기록인 11승을 세우며 승점 33점에 도달했다. 홈 팬들 앞에서 리그 선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원정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창단 이후 역대 시즌 최다승(12승)에 도전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